

조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정창권*

1. 머리말
2. 궁중여성의 현실적 처지
3.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4. 맺음말

* 고려대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조선조 궁중에는 왕비와 후궁, 궁녀, 비자(婢子) 등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궁중의 소설문화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예컨대 왕비와 후궁은 각별한 대우에서 얻어진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부조화를 보충하기 위해 소설을 보았고, 상궁 이하 궁녀는 그들의 상전에게 소설을 읽어주거나 필사해주는 과정에서 더불어 소설을 보았다.

궁중여성은 17세기 중반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소설 독서의 전통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궁궐 밖의 독서계와 부단히 교류하며 조선의 소설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래서 본고는 통시적인 체계를 갖추어 그녀들의 소설문화를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조선조 소설의 발달은 궁중여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업적도 정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어 : 궁중여성, 궁중문학, 소설문화, 장편소설, 실기문학, 규범서

1. 머리말

그간 조선조 궁중문학 연구는 궁중여성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계축일기>와 <한중록> 등 실기문학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¹⁾. 물론 여기에 궁중 관련 소설인 <인현왕후전>과 <계해반정록>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봉서(封書)와 같은 편지나 『내훈』·『여범』 등 규범류 계통의 산문문학이 별도로 연구되기도 했으나, 그 본류는 역시 궁중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실기문학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한중록>이 ‘궁중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고²⁾, 그것을 중심으로 조선조 궁중문학의 정체성이 수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제출된 자료들과 연구업적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조선조 소설의 발달은 궁중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³⁾. 특히 궁중여성은 소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주변의 왕이나 사대부 및 규방여성과 함께 지속적인 소설독서의 전통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변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양식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수십 수백 권에 이르는 거질의 국문 장편소설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궁중여성과 매우 두터운 친연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소설론이나 독자 연구를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조명되었을 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예는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궁중여성들의 허구문학에 대한 관심을 검토하여, 한편으론 그녀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론 이후 보다 종합적인 조선조 궁중문학의 연구를 위한

1) 이들에 관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숙, 『한중록연구』(정음사, 1983). 김용숙, 『조선조 여류문학 연구』(혜진서관, 1990). 민영대, 『계축일기연구』(한남대출판부, 1990).

2)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이대출판부, 1972), p.569.

3)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지식산업사, 2002).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아울러 멀리는 사대부가의 규방여성과 여항의 서민여성을 포함한 조선후기 여성들의 소설문화 연구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존의 문학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관한 고증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궁중여성의 존재양상과 소설의 습득·공유·전달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전체적으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궁중여성이 어떠한 현실적 처지에서 어떻게 대상을 향유하고 전승했는지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먼저 궁중여성의 현실적 처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녀들의 소설문화의 구체적인 실상과 전통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 다음 그녀들이 향유한 소설문화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2. 궁중여성의 현실적 처지

조선조 궁중에는 비빈(妃嬪)과 궁녀 이하 비자(婢子)들까지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경국대전』 내명부에 의거하면, 종4품 숙완 이상은 국왕의 부실로, 정5품 상궁 이하는 궁인직으로 각각의 품계를 갖고 있었다. 흔히 전자를 후궁, 후자를 궁녀라 불린다. 그리고 왕비는 국왕의 부실로서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명부에서 제외되었다. 이밖에 비자(婢子)와 같이 품계도 없이 잡역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있었다⁴⁾. 이들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궁중의 소설문화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먼저 이들의 현실적 처지를 검토하여 궁중여성의 소설문화를 고찰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기존 연구

4)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505.

뿐만 아니라 1906년 순조의 계비인 윤비(尹妃)를 따라 들어가 60년 동안 고락을 같이했던 김명길(金命吉: 1894~1982) 여사의 경험담도 참조하기로 한다⁵⁾.

먼저 왕비와 후궁인 비빈(妃嬪)은 국왕의 배우자요 그 후사를 잇게 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왕비는 소생의 왕자 중에서 왕위에 오르면 왕비로 일컬어지며 막대한 권력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보조적인 차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만약 왕이 나이가 어려서 즉위하면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여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유교적 생활관을 바탕으로 항상 검소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했으며, 부모와 생이별한 채 구중궁궐에 파묻혀 엄격한 거주 제한과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또한 궁궐 내의 음모나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늘 정신적 부담을 갖고 생활해야 했다. 특히 그녀들은 모든 여성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했으므로 높은 부덕을 쌓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평소 많은 시간을 유교적인 부덕을 함양하기 위한 책을 읽는 데 소비했다⁶⁾.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의 『여범(女範)』과 같은 규범류의 저술은 이같은 그녀들의 현실적 처지에서 어떻게든 살아나야만 한다는 일종의 생존의식에 기반하여 저작된 것이다. 그리고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궁중의 소설문화는 것처럼 각별한 대우에서 얻어진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부조화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허구적 출구가 아니었을까 한다. 예컨대 영웅·신마류 소설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연의·가문류 소설을 통해 교양을 쌓았으며, 여성 친연적인 소설을 통해 자의식을 대리적으로 발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비해 상궁 이하 궁녀들의 현실적 처지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했

5) 김명길, 『낙선재 주변』(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6)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441.

다. 우선 궁녀들은 본래 관비(기녀 포함)에서 차출되었지만, 실제로는 몰락 양반이나 중인·평민·상인 등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들어왔고, 먼저 입궁한 궁녀들의 추천에 의해 세습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또한 '본방나인'이라 하여 왕비(혹은 세자빈)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의 입궁 연령은 지밀나인의 경우는 4~5세, 수방과 침방은 7~8세, 나머지는 13~14세에 들어왔다. 이때부터 그녀들은 상궁들에게 맡겨져 수신서나 예의범절을 배우며 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을 쌓았는데, 특히 이들 가운데 지밀나인의 경우는 7~8세부터 한글 궁체쓰기의 연습을 시작해서 관례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입궁 후 15년이 경과하면 성년식인 관례를 치루고 나인이 되었으며, 다시 15년이 지난 후 왕의 교지를 받아 상궁이 되었다⁷⁾.

나인들의 생활은 지밀나인·도청나인·처소나인 등으로 구별되어 각기 지위에 따라 하는 일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고, 또 상하 차이도 몹시 심했다. 지밀나인은 왕이나 왕비 그리고 세자 가까이에서 방안 심부름도 하고, 봉서도 쓰며, 항상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시중을 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나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다. 도청나인은 수방이나 침방에서 궁내 왕족들의 의대며 침구를 만들고 수를 놓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조석으로 왕과 왕비에게 세숫물을 갖다 바치는 세숫간 나인, 의대를 빨고 다림질만 전적으로 맡아하는 세답방 나인과 소고방 나인, 수라이외에 죽이나 식혜 등을 만드는 생과방 나인은 모두 처소나인들인데, 그 지위가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궁중에는 하녀격인 비자(婢子)를 두었는데, 이들은 매일 출퇴근을 했으며, 결혼도 할 수 있었다⁸⁾. 궁녀들은 이같은 엄격한 상하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며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남남처럼 지냈다고 한다⁹⁾.

7)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일지사, 1987), pp.4~47.

8) 김명길, 위의 책, pp.128~131.

하지만 나인들은 이같은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재미를 찾기 위해 틈만 있으면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호·쌍륙·친잠례·다회치기 등이었다. 특히 지밀나인들은 비번일 때면 처소인 익각(翼閣)에서 생각시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다회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¹⁰⁾.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도 또한 위의 비빈들처럼 소설을 향유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자의적으로 소설을 읽을 기회는 매우 드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번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를 했지만, 그것은 명목적인 것일 뿐이요, 실제로는 연일 진연(進宴)이나 다례(茶禮) 등으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¹¹⁾. 오히려 이들은 지밀나인의 경우처럼 왕과 왕비에게 소설을 읽어주거나 필사해주는 과정에서 더불어 향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흥미를 통한 일상에서의 탈출이 주된 향유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궁중여성의 소설문화는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으며, 그 향유의식 또한 제각기 달랐다. 즉 비빈들의 경우에는 각별한 대우에서 얻어진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부조화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설을 보았고, 상궁 이하 궁녀들은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한편 왕과 왕비에게 소설을 읽어주거나 필사해주는 과정에서 더불어 소설을 보았던 것이다.

3.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조선조 궁중여성은 지속적인 소설 향유의 전통을 유지하며 새롭고 다양

9) 김명길, 위의 책, p.164.

10) 김명길, 위의 책, p.135.

11) 김용숙, 위의 책, 1987, p.56. 김명길, 위의 책, p.135.

한 문화를 창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궁궐 밖의 독서계와 부단히 교류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본장에서는 그녀들의 소설 문화를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궁중여성이 본격적으로 소설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의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후기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궁중여성은 불경언해본에서 비롯된 불교계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즉 한글이 창제된 이후 궁중의 정음청(언문청)에서는 많은 불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국문의 실용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빈들이 읽기 위해서였다¹²⁾. 또 그같은 성과에 힘입어 출현한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과 같은 불교계 소설이 문정왕후 등 궁중여성에게 읽히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궁중여성이 주변의 왕과 사대부가의 규방여성과 함께 각종 소설을 돌려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킨 것은, 임란을 전후하여 전래된 중국 통속연의소설의 전래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연의소설은 임란을 전후하여 국왕과 남성 식자층을 중심으로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 나갔다¹⁴⁾. 즉 허균·유몽인·이식 등이 언급한 것처럼 임란을 전후하여 연의소설의 대부분이 전래되었다. 이에 그것들의 급속한 확산력을 우려한 일부 사대부들은 그 폐해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점차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선조(1552~1608)는 <삼국지연의>를 읽고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소설에 대해 개방적이었다¹⁵⁾. 또 그는 아래와 같이 정숙옹주를 통해 부마에게 중국 명대의 공안소설인 <포공안>을 읽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12) 김동욱, 『국문학사』(일신사, 1989), p.109.

13) 황폐강, 나염 보우와 『왕랑반혼전』, 『국어국문학』 42·3합병호(국어국문학회, 1969).

14) 정창권, 위의 책, p.48.

15) 『선조실록』 2년 6월 20일조.

今日亦親往見之 則幾盡脹起호고 너나쁜 證이 업스니 모리 스이면 庶有回根
之望矣 且四書一帙 書言故事一帙 包公案一帙 보내노니 駙馬주라 包公案乃怪
妄之書 只資閑一晒而已¹⁶⁾.

그 결과 최소한 17세기 중반에는 연의소설이 국문으로 번역되어 점차 여성독자층을 포괄해 나갔다. 즉 김만중(1637~1692)이 <삼국지연의>를 언급하면서 '임진 이후에 우리 나라에 성행하여 부녀자나 어린애들까지도 다같이 외워서 말할 수 있다.¹⁷⁾'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삼국지연의>를 위시한 연의소설이 최소한 17세기 중반 이전에는 국문으로 번역되어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효종대 인선왕후 장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궁중여성의 소설문화는 바로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선왕후(1618~1674)는 계곡 장유의 딸로서, 아들 현종과 숙안·숙명·숙휘 등 다섯 명의 딸을 두고 있었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딸들 뿐 아니라 사대부가의 규방여성 과도 교류하면서 당대 여성들의 소설문화를 촉진시켰다.

우선 인선왕후가 숙명과 숙휘 공주 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녀는 딸들이 출가한 후 대단히 적막하고 무료함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듯하다¹⁸⁾.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숙명공주와 더불어 중국소설의 번역본인 <녹의 인전>·<하북이장군전>·<수호전> 등을 돌려보면서 무료함을 달래었던 듯하다.

글월 보고 무양호니 깃거호며 보듯 든든 반기노라. 그리 나간디 여러 날
이 되도록 아마도 섭섭무류호여 호노라. 녹의인전은 고터 보내려호니 깃거호
노라. 네 일역은 호는다. 숙휘는 좀 벼개귀여으를 므자니 기고 서고 벼개귀여
으 호려호고 시방 밋노라 브스다 히는디 너는 엇디려 호는다¹⁹⁾.

16) 김일근, 『친필언간총람』(경인문화사, 1974), p.12.

17) 김만중 저, 홍인표 역주, 『서포만필』(일지사, 1987), p.384.

18) 김일근, 위의 책, p.18.

19) 김일근, 위의 책, p.18.

글월 보고 무양하니 깃거흐며 보논듯 든든 반기노라. (...). 하복니장군던
간다. 감역집의 벗긴 칩 차자 드러올 제 가져오나라²⁰).

글월 보고 무양하니 깃거흐며 보논듯 든든 반기노라. (...). 슈호면으란 누
일 드러와서 네 출혀 보내여라²¹).

또한 인선왕후는 용인이씨와도 교류하면서 규방여성의 소설문화를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용인이씨(1652~1712)는 이세백과 연일정씨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리고 17살에 권상명(1652~1684)과 결혼했으나 32세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녀의 소설에 대한 편력은 대단했는데,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을 비롯해서 <한씨삼대록>·<설씨삼대록>·<조승상칠자기>·<삼강해록>·<의협호구전> 등 무려 7작품을 필사해서 가보(家寶)로 진송하게 하였다. 이들 작품 가운데는 <조승상칠자기>·<삼강해록>·<의협호구전> 같은 중국소설 뿐만 아니라 <소현성록>·<소씨삼대록>·<한씨삼대록>·<설씨삼대록> 등 국내창작 소설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²²).

용인이씨가 인선왕후와 교류한 것은 매우 일찍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14살 때 언책자를 등서해서 인선왕후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용인이씨의 문학적 편력은 아마도 그러한 인선왕후의 격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맥을 통한 소설의 교류이다. 대개 용인이씨는 조모 안동김씨를 통해 인선왕후와 인척간이었다. 또한 그녀는 인선왕후의 셋째딸인 숙휘공주와도 인척간이었다. 왜냐하면 숙휘공주는 용인이씨 어머니의 남동생인 정제현에게 출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20) 김일근, 위의 책, p.18.

21) 김일근, 위의 책, p.25.

22)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지식산업사, 1995).

23) 정창권, 위의 책, p.80.

보면 세채가나 방각본이 출현하기 이전인 17세기 여성들의 문학적 교류는 주로 인척관계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궁중여성의 소설문화는 18세기인 영조대 영빈이씨와 완산이씨에 이르면 창조적인 변형을 겪으며 보다 더 폭넓어진다. 물론 그 이전인 현종과 숙종대에도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전통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현종이 대왕대비전에 보낸 한글 편지와 숙종의 누이인 명안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 부기된 소설 목록에 중국소설 〈옥교리〉, 〈태평광기〉, 〈위생전〉, 〈환혼전〉, 〈박안경기〉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궁중여성이 지속적으로 소설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영빈이씨(?~1764)는 상민 출신으로 궁궐에 들어와 영조의 세손인 왕세자(사도세자)와 일곱 명의 딸을 낳고 정실 이상의 지위를 확보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같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딸들은 유독 조사(早死)한 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녀는 세자를 낳은 지 백일만에 저승궁의 나인들에게 보내야 했으며, 그들에게 심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였다²⁵⁾. 또한 그같은 처지의 왕세자가 영조와 성격적 갈등을 겪으며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급기야 아버지의 손에 의해 9일 동안 뒤주에 갇혀 있다가 굶어 죽는 참변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

이처럼 복잡한 삶의 행방 속에서, 영빈이씨는 소설을 통해 다단한 인생사의 시름을 잊거나 규범서를 편찬하여 생존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즉 낙선재본 번역소설 가운데 〈손방연의〉(신마소설)와 〈무목왕정총록〉(영웅소설)에 '영빈방(映嬪房)'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²⁶⁾, 그녀는 이같은 신마와 영웅적인 내용의 소설을 보면서 현실적인 시름을 달랬던 듯하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소설의 수용자적 입장에 머물지 않고 『여범(女

24) 박재현,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한국의국어대 박사학위논문, 1993), p.17 재인용.

25) 최봉영, 「임오화변과 영조말·정조초의 정치세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235~236.

26) 박재현, 앞의 글, p.249.

範』이란 규범서를 직접 번역하여 편찬하기도 하였다. 『여범』은 역대 중국의 여성 가운데 모범적으로 살다간 여인들의 기록을 모은 것으로²⁷⁾, 그녀의 고금 행적에 관한 해박함과 질박한 생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그녀의 문학적 감각을 이어받아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1735~1815)는 실기문학인 『한중록(閑中錄)』을 저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완산이씨는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摸本)』²⁸⁾을 편찬하여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회모본은 완산이씨가 83여 종의 방대한 중국소설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정하여 화원 김덕성 등으로 하여금 128폭의 판화로 제작케 한 작품집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박재연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우선 서(序)와 소서(小敘)에 부기된 간지와 편찬자 및 처소를 토대로, 영조 38년 임오(1762)에 완산이씨가 화원 김덕성(金德成: 1729~1797) 등을 시켜 판화토록 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완산이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토대로 위의 영빈이씨라는 개연성 있는 추정을 하였다. 즉 그 처소인 영춘각과 여취각이 왕후나 후궁의 거처였다는 점과, 그것은 신분으로서 당시의 생존인물 가운데 이씨는 영빈이씨 뿐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완산이씨는 곧 영빈이씨라고 추정하였다. 물론 이러 공주와 옹주들도 매제하지는 않았으나, 대개 공주나 옹주는 결혼하면 출가하여 궁궐 밖에서 거처했다는 점과 출가 전에 음사소설을 포함한 80여 종의 중국소설을 열거할 수 있을 만큼 독서 경험이 풍부했을까라는 의문을 들어 일축하였다²⁹⁾.

이같은 그의 추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듯하다. 왜냐하면 영빈이씨는 이미 1730년에 '영빈'이란 대외적인 호를 갖고 있었고, 위에서처럼 자신이 즐겨 읽었던 소설에도 '영빈방'이란

27) 영빈이씨 편저, 유재영 역주, 『여범』(형설출판사, 1988), p.3.

28) 박재연, 『중국소설회모본』(강원대출판부, 1993).

29) 박재연 편, 위의 책, pp.156~157.

도장을 명백히 새겨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완산이씨는 공주나 응주 혹은 상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회모본의 체계는 서두의 서(序), 소서(小敘)와 본문의 128쪽의 판화로 구성되어 있다. 〈서유기〉 삽화가 40쪽으로 가장 많고, 〈수호전〉이 29쪽, 〈동서한연의〉가 5쪽, 〈열국지〉와 〈전등신화〉가 각 4쪽, 〈손방연의〉 2쪽, 〈수당연의〉·〈문원사굴〉·〈열선전〉·〈평산냉연〉·〈금고기관〉·〈형세연〉 등이 각 1쪽씩이다³⁰⁾.

그러나 실제 판화의 주제는 크게 인물화와 장면화로 대별된다. 인물화는 대체로 소설의 주인공이나 인상적인 인물의 행태를 정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장면화는 전쟁과 같은 군담이나 정감어린 애정 장면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완산이씨는 인물들의 무용담(武勇談)을 즐겨 선정했으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도 과감하고 보여주고 있다.

물론 완산이씨와 김덕성 등의 화원들이 중국소설에 그려진 삽화들을 일정 정도 참조했을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박재연이 〈형세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처럼 회모본의 삽화는 원 삽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³¹⁾. 그리고 필자도 〈삼국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역시 여타 이본들의 삽화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로 볼 때 완산이씨의 회모본은 중국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변용, 곧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³²⁾.

한편 이상의 소설문화가 주로 왕비와 후궁 등 상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면, 정조대 궁중여성은 여타의 나인들까지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 화빈 윤씨와 영희, 경희, 복연 등 나인들이 필사한 〈곽장양문록〉이 바로 그것으로, 이들은 장편소설을 공동으로 필사하면서 본문의 위 아래에 여백지를 붙여 자신들의 필적을 명백히 하고 있다.

30) 박재연 편, 위의 책, p.193.

31) 박재연 편, 위의 책, pp.193~194.

32) 정창권, 위의 책, p.78.

의빈 성씨(1753~1786)는 약 14세에 입궁하여 29세에 상의(정5품 女官)의 신분으로 원자를 낳아 소용에 봉해졌다. 1784년 응주를 순산했으나 두 달이 채 못되어 죽고, 1785년 5월에는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죽었다. 그해 9월에 의빈 성씨도 해산을 앞두고 병사하였다.

의빈 성씨가 나인들과 함께 작품을 필사한 시기는 1766년~1786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작품 내용이 자신의 평소 생각과 합치되기 때문인 듯하다. 즉, <곽장양문록>은 전편 <몽옥쌍봉연록>에 이은 연작소설이다. 전편이 영웅소설적인 성향을 토대로 가문소설에서 이탈된 면모를 보여준 반면, 후편은 곽문과 장문을 배경으로 주로 혼사담과 처-처갈등을 통해 가문의 내적 안정과 창달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후편의 권5와 권6은 황궁을 배경으로 후궁의 음모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의빈의 현실적 처지와 부합하여 매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듯하다³³⁾. 하지만 이 작품이 던져 주는 의미는 비단 의빈성씨에게만 국한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와 더불어 후궁들이 주변의 나인들과 별다른 격식 없이 소설문화의 장을 넓혀갔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조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가 절정을 이루었던 19세기 헌종대 이후의 '낙선재본 소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낙선재본 소설은 이병기³⁴⁾의 간략한 소개 이래, 1969년 정병욱³⁵⁾이 해제를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김진세³⁶⁾, 이상택³⁷⁾ 등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그 대략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장효현이 소장 경위 등을 체계화하는 한편 서지 및 연구사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후학들의 연구 발판을 마련하였다³⁸⁾. 또한 박재연은 낙선재본 번역소

33)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34)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신구문화사, 1967), p.182.

35) 정병욱, 낙선재 문고 국문서적 해제, 『국어국문학』 44·45합집, 국어국문학회, 1969(『한국 고전의 재해석』, 흥성사, 1979에 재수록).

36)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국적문제」, 『한국문학사의 쟁점』(집문당, 1986).

37)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집(1986).

설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그에 관한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해 내었다³⁹⁾. 여기에서는 그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낙선재본 소설의 정체에 대해 간략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낙선재는 1847년 헌종이 총애하던 후궁 김씨를 위해 지은 것으로, 원래는 창경궁에 속한 연침(燕寢: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이었다. 낙선재의 동쪽 옆으로는 석복헌과 수강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보통 낙선재라고 하면 낙선재를 중심 건물로 석복헌과 수강재를 비롯해 뒤뜰의 상량정, 한정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부른 것이었다. 낙선재본 소설은 이들 가운데 석복헌 다락에 있었다. 즉 앞서 소개한 김명길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석복헌 다락에는 진주·산호·자미노·비취 등의 패물과 한글 소설책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들어와 패물을 없애 버리거나 한글 소설을 많이 불태웠다고 한다⁴⁰⁾.

낙선재에는 헌종의 후궁 김씨 이후 명성왕후 민비가 해산 때면 수강재를 찾았으며, 순종 또한 수강재에서 낳았다. 그리고 1917년 대조전에 불이나 순종과 윤비가 낙선재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윤비는 이곳 석복헌에서 생활하며 바로 옆 건물인 수강재에서 피아노와 영어를 배웠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윤비는 다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 생활과 정릉에서의 우거(寓居) 생활 7~8년을 빼고는, 윤비는 줄곧 이곳 석복헌에서 불경을 읽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1966년 2월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또한 덕혜옹주도 이곳 수강재에서 보냈다.

낙선재본 소설의 소장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장효현은, 이들 소설은 낙선재가 신축된 1847

38)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9) 박재연, 앞의 글, 참고.

40) 김명길, 위의 책, p.78.

년 이전, 18세기 이래 궁중에서 읽혀온 소설들로부터 1884년을 전후하여 왕명에 의해 이종태가 중국소설을 번역해 궁중에 들여보낸 소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집적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위의 영빈이씨가 소장했던 작품이 낙선재에 그대로 들어있고, 이전부터 많은 양의 소설이 궁중에 있었으며, 이종태가 고종의 지시를 받아 번역한 <홍루몽> 류와 <선진일사> 같은 작품이 낙선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⁴¹⁾.

1969년 정병욱의 해체에 의하면 낙선재에 소장되어 오던 국문서적은 창작소설·번역소설·가사·기행·사서(史書)·기타 등 총 113종인데, 이 가운데 소설이 83종이었다⁴²⁾. 그 중 현재까지 번역소설로 확인된 것은 33종이다. 이들 소설의 특징은 모두 궁체로 쓰여졌으며, 분량이 대체로 장편이라는 점이다. 즉 83종의 소설 가운데 5책 이상의 장편소설이 67종이나 된다.

결국 현종대 이후 낙선재본 소설은 대체로 왕비나 후궁 및 옹주와 같은 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소설책을 패물과 함께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궁체이며 장편인 것을 보면, 필사 혹은 낭독 과정에서 그 이하의 많은 궁녀들이 참여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이 낙선재가 신축되기 이전부터 집적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수집되었다는 사실에서, 궁중여성의 소설문화가 갖는 강인한 전통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1) 장효현, 앞의 글, pp.36~39.

42) 정병욱, 위의 책, 1979, p.401.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조 궁중여성의 현실적 처지와 소설문화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토대로 궁중여성의 소설문화가 갖는 성격과 의의를 간략히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먼저 조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는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으며, 그 향유 의식 또한 각자가 처한 현실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궁궐 밖의 독서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소설의 발달을 촉진시켰지만, 한편으론 자신들만의 독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그녀들은 <계축일기>와 <한중록> 같은 실기문학, <내훈>이나 <여범> 같은 규범서 등을 저작하거나, 주제적인 변용을 통해 『중국소설회모본』과 같은 또다른 문화양식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이 향유한 소설은 중국의 통속연의소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창작소설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양과 폭은 더욱 더 풍부해지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그녀들의 문화의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궁중여성은 그같은 소설들을 통해 사실적인 역사의식과 허구적인 문예의식을 동시에 증진시키면서 점차 문화적인 안목을 넓혀나갔던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주로 장편소설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내적으로 조선 후기 장편소설이 상류층의 지적 취향과 부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외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에서 기인한 듯하다. 즉 이들이 장편소설을 선호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문화적 체질과 맞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궁중여성은 조선조 소설문화의 발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업적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⁴³⁾.

43) 정창권, 위의 책, p.80.

□ 참고문헌

- 김만중 지, 홍인표 역주, 『서포만필』, 일지사, 1987.
- 김명길, 『낙선재 주변』,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 김용숙, 『한중록연구』, 정음사, 1983.
- 김용숙, 『조선조 여류문학 연구』, 혜진서관, 1990.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 김일근, 『친필언간총람』, 경인문화사, 1974.
-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국적문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민영대, 『계축일기연구』, 한남대출판부, 1990.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지식산업사, 1995.
-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영빈이씨 편저, 유재영 역주, 『여법』, 형설출판사, 1988.
-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67.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집, 1986.
-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정병욱, 낙선재 문고 국문서적 해제, 『국어국문학』 44·45합집, 국어국문학회, 1969
(『한국 고전의 재해석』, 홍성사, 1979에 재수록).
-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분록> 연작 연구, 고려내 식사학위논문, 1997.
- 최봉영, 임오화변과 영조말·정조초의 정치세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 이대출판부, 1972.
- 황패강, 나암 보우와 『왕랑반혼전』, 『국어국문학』 42·3합번호, 국어국문학회, 1969.

Abstract

A Study of literary works by women within the Royal Court of the Choson dynasty

Jeong, Chang-Guen

This is a systematic study of literary works by women within the Royal Court of the Choson dynasty.

There are women of various classes within the Royal Court of the Choson dynasty, such as a queen, a royal concubine, a woman servant, etc. They were concerned with the formation of the women's novel literature within the Royal Court of the Choson dynasty. For example, a queen and a royal concubine were well off so they sought for their time. They spent time reading novels. A court lady and a woman servant read novels while they read for their lord or wrote from novels.

From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stages of the 20th century, women in the Royal Court of the Choson dynasty kept going to read traditional novels while they started to develop various cultures based on their readings. Also, they interacted with the reading public of the outside world and did much to help literature of Choson dynasty. I looked into their literature and tradition in the historical system.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in the Choson dynasty is related to women of various classes within the Royal Court. So we must evaluate their contribution properly.

key words : women of the Royal Court, the court literature, novel tradition, a full-length novel, a historical literature, a moral standard book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